

목어

불안시대 어떻게 사나

지난 4.13총선에서 당선하여 5월 28일 금배지를 가슴에 단 국회의원 273명 중 선거법 위반으로 18명이 기소대상자로 확정되었고, 2명 정도가 늘어날 예상이며, 기존 형사사건으로 재판진행 중인 의원이 9명이나 되어 10%를 상회하는 금배지가 녹슬어가고 있다.

“외톨이 맑아야 어둠물이 맑다.” 얼마 전에는 광주 민주화의 영령들을 참배하러 간 신성한 386 금배지들마저 질련한 술이나 땀이, 국민의 교육을 담당한 교육부장관까지 그 대열에 줄서다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경제도 지난달에는 무역수지가 적자라 기울었고, 주기도 열처닥닥하여 국민의 생존권마저 불투명하다. 정부도 국민도 시민운동가도, 하물며 아들조차 믿을 수 없는 불안한 시대, 이 나라에 법은 어디에서 해매고 있으며, 윤리도덕은 어느 구석에 구겨져 있고 양심은 어디에 묻어버렸는가.

인간에게는 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양심이 없으면 아무 데도 쓸모가 없다. 권위와 욕망을 버리고 정부가 숭선수범하여 양심 찾기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과 교육부장관 등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나조차 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시바빠 챙겨봐야 할 일이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본지 논설위원)

조계종 '승가고시' 시행 과제

기본교육기관 교과목 통일

현행 4급 고시 계열위주 출제 '문제'

고시제도는 삼국시대 불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승지제도에 따른 품계 부여가 그 유래이며, 승단의 위계와 승려의 지위를 가능하게 하는 방편이 됐다. 고시제도는 1600여년 한국 불교사에 배출하여 승단의 발전과 승려의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를 했지만, 1954년 비구-대처 불교분규를 전후하여 명맥이 단절됐다.

1962년 조계종이 창종하면서 교단 전체의 위계를 세우고자 종헌에 고시위원회를 명시했다. 그러나 1968년 대종사 9인, 종사 28인에게 법계를 풍수하고, 1972년 대종사와 종사급에 한하여 특별전형으로 시행한 것이 전부이다.

이런 상황에서 승종진작과 승려위계 확립, 승려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법계에 따른 승가고시 실시 문제는 통합종단 창종 이래 해마다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종단 분규 사태를 거치면서 승가위계 확립과 승종선양이 필요하다는 내외의 여론이 높았다.

이번 종단 차원의 승가고시 실시방안은 구족계만 받으면 모두 평준화돼 버리는 위아래 없는 승려위계를 확립하고, 스님에 대한 재교육 기회도 부여하여 승가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시를 주관하는 주체도 없이 종법에 맞지 않게 16년간 임시적으로 구족계 수

계를 위한 4급 승가고시가 실시된 것은 한국 불교 대표종단으로서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 처사였다.

조계종은 가을 구족계 수계산림부터 종단 차원에서 첫 실시할 4급 승가고시를 시작으로 이후에는 3급 이상의 승가고시도 점차적으로 실시하여 수행력과 종단지도력, 위계서열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을에 실시하는 구족계 수계산림부터 4급 승가고시를 원만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다. 먼저 고시위원회법, 법계법, 승가고시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다.

현재의 승가고시법에 의하면 승가고시위원회 시행근거가 모호한 만큼 종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고시전형의 업무를 관장하는 교무부가 없어진 만큼 교육원으로 이합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기본교육의 통일을 위해 강원 및 대학의 기본이수 공통과목 선정이 선행돼야 한다. 4급 승가고시의 실시는

전통강원을 위주로 한 승가고육과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의 근대적 학교교육으로 병립돼 기관에 따라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이 차별화 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종법에 규정된 4급 승가고시과목 8개종 선학개론 불교사 조계종학 외국어 등 4개 과목은 전통강원에 개설되어 있지 않고 있다.

85년부터 시행된 4급 승가고시는 울원 중심의 계단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대학과 강원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90% 이상의 문항이 계열위주로 출제돼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고시위원회는 고시의 내용을 계열편중이 아닌 삼장(三藏)에 의거하여 기본교육 이수 정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85년 승가고시위원회를 역임한 고산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은 “승가고시제도의 시행은 승려 전반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승단위계를 확립해 하여 종단안정의 기틀을 다지는데 도움이 유력한 방도가 될 것이다”며 “교육원에서 사무를 뒷받침하는 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조계종 교육원은 5월 30일 조계사 대회의실에서 승가고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찰 공원기여도 1천억”

조계종 관람료위원회

관람료 1천원 반환

참여연대 소송에 대항

“참여연대 문화재관료료로 낸 100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면, 조계종은 1천억원을 돌려달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

참여연대는 5월 25일 관람료위원회와 국립공원인장료-문화재관료료 합동징수사찰 연석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서에 잘 나타나 있다. “사부대중의 신행공간인 사찰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대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사찰토지를 공원지역에 편입시켜 무려 1천억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해상 면적을 제외한 국립공원의 면적은 3825km이며, 이 가운데 사찰소유지는 8.3%에 달하는 317km이다. 국립공원내 편입된 토지까지 합하면 463km(전체 자연공원 면적의 9.7%)이다. 1천억원이라는 수치는 국립·도립·군립공원내 편입된 사찰소유지의 사용료를 1km당 1000원으로 계산해 6년치를 산출한 것이다. 조계종의 국립공원 기여도가 5년간 최소 1천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사용료는 정부가 국유재산에 임대할 때 공시지가의 0.5%를 임대료로 받고 있는 것을 준용한 것이다.

조계종총무원 재무부 김영주 계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96년 5월 공원구역의 사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자연공원법 개정용 당시 공원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내부부에 권고하였으나, 내부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은 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손실보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헌법 23조 3항에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총무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재관료료 1000원을 돌려받는 것이 시민들의 권리이고 조계종이 그동안 시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오해를 품지 않는다면, 조계종도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조계종의 소송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도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조계종의 생각이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현실의 ‘몸’을 갖추지 못하면 무의미

17) 간화선은 최고의 수행법인가(2)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간화선이 뛰어난 수행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기가 ‘쉽고 빠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간혹 간화선은 다른 수행법보다 ‘높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단이라고도 한다. 우선 이 두 가지 주장을 검증해 보기로 하자.

그러나 간화선의 주장자들이 내세우는 주장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선지식이 불성을 가리킬 때 수행자가 그것을 볼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간화선이 표방하는 기치 안에는 불성을 가리키는 선지식의 역할 외에 수행자의 행법 자체가 깨달음을 얻기에 쉽고 빠르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화두 참구가 삼매력의 증진에 매우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기와 행법의 다양성을 생각할 때 간화선만이 어떤 경우에도 가장 뛰어난 수행법인 설득력이 약하다.



서정형 서울대 강사·철학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우선 위빠사나는 (사념처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붓다의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한 뛰어난 수행법이다. 붓다의 교설을 소승 운운하며 평가절하한 것은 소위 ‘대승 불교’의 근거없는 오만이지만 경전에 명시된 붓다의 수행법까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그 밖의 수행법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기록이 많지만 그것이 ‘완전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예컨대 지눌의 경우, 경을 보다가 세 번의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간화선 제 일주자들이 화두 참구가 아니라서 완전한 것이 못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물론 그 반대 주장도 성립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현실에서 보여주는 증거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인쇄인: 김규석

헤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 733-3900 6263-3900
담당 ☎(직) 6263-3921-22,28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스포르츠 조선과 함께 이는 중국 실크로드 문화탐방 여행 8日 ₩1,490,000
일 정: 서울-서안-돈황-유원-투루판-우루무치-서안-서울

인도전문 여행사 예조에서 선보이는
세천년 인도, 네팔 자유여행(28日) ₩1,990,000
◆ 인도 대도시: 델리, 아그라, 자이푸르, 바라나시, 카주라호
◆ 네팔: 카트만두 여행중 다양한 장소, 충분한 여행 스케줄